

남·북문화교류
통일문화운동의 물결

통일문화운동의 실효성에 부처

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행사였다. 제2차 '통일을 위한 범민족 문화예술인 심포지움'에 앞서 지난 4월4일 민예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이 행사는 하나의 조국,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이 준비하는 토론회이다. 여기에 서는 제 1차 통일문화운동의 현황과 향후 전망, 또한 교류와 연대를 위한 통일문화운동의 비교 분석 등이 4차에 걸쳐 심도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미 그 사전작업으로써 '민예총 남북문화교류특별위원회'가 국내외 일선에서 1차모임을 갖고 특히 일본에서 가진 심포지움에서는 '민주민족문화예술인협의회'와 '재일민주문화예술인협의회'가 참가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문화예술인의 역할 규정, 민예총과 해외동포 문화조직과의 연대, 북한 민족, 통일문화 건설의 방안 모색 등을 심포지움의 사업목표로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1차 심포지움에서는 '하나의 민족을 위한 공동선언' 등 그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단체 내부의 조직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표의 적극적인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번 제2차 '범민족 문화예술인 심포지움'에서는 총론으로 '현단계 통일문화운동의 지로'와 각론으로 '각 단체 통일문화운동의 현황과 교류작품의 비교분석' 등이 발표 형식으로 다루어졌다.

총론에서는 '통일의 주체는 이 땅의 민중이며 인민이다'라고 전제하며 '남북을 하나로 보는 민족

예술은 조국분단의 비극 속에서 민족과 인민의 힘, 정서가 창출한 동력에 의해 남과 북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확보하였으며 더욱 세분하여 지역적 다양성을 전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2차 심포지움의 전망을 언급하였다.

각론에서는 문화, 미술, 음악,



◇지난 11일 열렸던 제2차 심포지움은 실질적 성과를 보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통일문화운동 현황과 방법적 접근문제 골자
단체별 조직강화·교류전선 구축방안 모색해야

연극, 영화, 건축, 춤 등 7개 장르의 발제자들이 '남북 문화예술, 무엇으로 만났 것인가'의 제명 아래 각 장르가 갖는 남북 문화예술의 현황과 특성 및 교류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발제자들이 피력한 의견에서 공통적인 것들은 첫째, 남북 문화예술 작품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자료 및 작품교류의 간접교류에서 예술인의 상호 방문을 직접적인 교류로 순차적인 방법을 택해야 하며 셋째, 대중의 신뢰를 획득하고 민족

교류방안도 발제된 바 있다. 이대로, 행사였다. 그러나, 제2차 '통일을 위한 범민족 문화예술인 심포지움'은 발제자들이 아직 국내 문화예술인들로 한정된 탓에 적극적인 방안과 실질적 성과물을 얻어내지 못하고 각기 원론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나름대로의 반성도 지적되었다. 또한 교류와 동질성의 확인을 가능케 해주는 상호교류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전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이점의 문제점이었다. 제4차 심포지움이 실속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교류 후의 성과물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하는 점, 남북한 문화예술의 상호 수용 문제 등을 사전에 논의, 그 결론을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회담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어떻게 보면 남북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될 대안처럼 보이지만 남북 예술인들이 사전에 협의된 상호교류의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4차 심포지움 역시 낮은 차

는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그리고 심포지움 행사의 진행 사항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일정은 세 차례의 토론회와 이후 행사로 잡혀 있으며, 그 내용은 첫째, 민족예술의 현황과 통일운동의 전망 둘째, 무엇으로 어떻게 만났 것인가 (남, 북, 해외동포 문화예술 교류와 범민족 통일예술제 추진에 관하여) 셋째, 국제연대와 해외동포 문화운동 (범민족 통일문화 연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조직전망)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임박한 처럼 말해왔던 남북 민간 교류의 합법화, 정부 차급과의 문제와는 어긋나지 않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안다. 더구나 제3차, 4차 심포지움에서는 통일원, 문화부 및 예술 인사들을 초청, 심포지움 행사에 참가시키는 넉넉함을 보이게 하겠다.

원의 만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민예총 기자회견 당시 밝힌 내용을 보면 금년 6월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갖는 제4차 '통일을 위한 범민족 문화예술인 심포지움'에는 북한의 '조선문화예술총동맹'과 일본의 '재일조선문화예술인동맹' 등 15개의 단체도

총의 심포지움 행사와 더불어 미묘한 감을 불러일으킨다. 예총은 기자회견 남북 문화예술교류만을 제의하지 않고 개인, 또는 군소 단체들의 무분별한 남북 예술교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자가 당국적인 억지 논리를 펴려왔다.

필자는 예총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첫째 남북 문화예술의 최고 단계라 할 만큼 예총은 민족적 민족예술의 발전에 기여했는지 둘째, 예총이 예술을 지향하는 순수한 사단법인인지 아니면 관제화된 기구인지, 또한 관제화된 기구가 아니라면 기자회견 민간단체의 차원이 넘는 발언을 하게된 건지는 무엇인지. 셋째, 도대체 남북한 예술교류에서 개인이나 군소단체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앞으로 예총은 신문기사의 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선 예술인 개인과 단체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창구인 남북한 정부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정권의 실리와 정책모순 장악에 급급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온전한 차이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통일인 민족의 문제이니 만큼 같은 피가 흐르는 동포적 유대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실속 있는 창구개방을 펼 수 있을 고대한다.

아울러, 좋고이지만 이 글을 읽는 청년학생들의 통일운동에 대

한 관심도 기대해 본다. 청년학생층에 참가했던 일과, 이후 그것이 물고 왔던 산물들을 접하며 청년학생들의 남북한 문화예술교류와 같은 심도있고 보다 적극적인 통일운동의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온 국민과 청년학생들의 관심이 제3, 4차 '통일을 위한 범민족 문화예술인 심포지움'에 집중되어 통일운동의 뜨거운 열기가 한층 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인하 (시인)

강연초록
근대문학 구분의 쟁점

조동일 교수의 '우리문화...'

국문학사의 시대구분은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래서인지 지난 16일 '민족문화학술회의' 주최로 가졌던 조동일 교수의 문학사 강의 '우리 문학 유산의 이해'는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국문학사 시대구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는 근대문학의 기점과 성립에 대한 조동일 교수의 강의를 소개한다.

조동일 교수는 처음에는 사냥, 노래, 생활내용을 담은 이야기의 단순한 구비문학 즉, 원시문학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 후 점차 문헌이 되어 문헌문학이 된다고 한다. 문헌문학의 양상은 달라졌지만, 장부집단이 나타나 문학의 양상도 달라졌는데, 장부집단이 자신들의 투쟁과 승리를 자랑한 전쟁사시처럼 고대문학의 가장 중요한 갈래에 놓일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중세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적인 성격이다.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만민평등의 보편적인 종교가 나타나고, 문헌문학 전체가 통용되는 공동의 문어가 쓰이게 되면서 중세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지지를 소유하고 농민을 지배하는 귀족과 피지배층이 엄격한 신분제에 의해 구분되는 것은 세속의 질서라고 하고, 이와는 별도로 종교적 이상에서는 만민평등을 외치 이원적인 가치관을 군현했다. 중세문학 역시 이러한 가치관을 표현했고, 표현수단 역시 이원적이었던 것이다. 귀족은 세련되게 다듬어진 형식을 갖춘 고조형적인 것을 갖춘 동등한 그런 서정시에 치우쳤다. 서정시는 공동의 문어로 된 것과 자기 지방 구어를 다듬어서

언문일치 정착, 3갈래 장르분류의 시기

만든 것의 두가지가 병존한 것이다. 중세 후기문학은 종교적 상상과 설화적 허구를 결합시킨 공상적 이야기가 글로 정착하는 한편, 정치·이념적인 질서를 서술할 수 있는 데 사용되는 교술을 포함한 교술문학의 증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는 문학사의 한 시대로서 일반화시킬 수 있다. 이 시대 문학의 담당자로서 시민이 대두했기 때문에 소설이 성장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통된 현상이며, 권위주의적인 문학의 양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구이 되는 전통소설의 양성이 뚜렷하다.

근대문학의 성립은 앞의 이행기가 끝나야 가능했다. 근대문학 전체의 문어를 폐기하고, 각자의 민족어만 사용하여 언문일치를 이룬 문학이며, 갈래체제를 서정시, 소설, 희곡으로만 한정하고, 현실생활을 충실히 반영하며, 인쇄된 상품으로 유통되는 작품을 내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동일 교수는 끝으로 유럽 이외의 지역의 근대문학을 유럽을 위시한 서양 근대문학의 이식이라고 보는 잘못된 견해를 경계했다.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 동안에 축적된 역량을 민족해방운동으로 발화하면서 근대문학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으며, 덧붙여 3·1운동이나 중국의 5·4 운동의 보편성을 언급했다. (이금주 記者)

구조주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유럽에서 시작된 언어 연구에 의해 언어가 활동이며 세계전망과 관계있다는 결론은 그 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의해 자연과학적 뒷받침을 받으며 모든 개념은 그 개념을 낳게 한 특수한 변모의 그릇속에서만 유효하며 개념을 고립시키는 것을 사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낳는다. 이런 결론은 언어현상을 어떤 방법에 의해 여러 요소로 나누고 재구성 할 수 있다는 구조언어학의 주장에 바탕을 둔 언어철학과 새과학정신의 대두는 역사주의·실증주의적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활동이나 관계기능에 중점을 두게 했다. 그 새로운 연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용한 것이 소쉬르의 구조언어학이며, 그 방법이 구조주의라 불리는 것이다.

구조주의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오랫동안 프랑스 문학비평을 주도해온 랑송의 영향 아래, 즉 실증주의적, 역사주의적 문헌연구 방법을 병행하기 시작한 폴랑바르트와 베베르를 공격하여 레이몽 피카르가 '새로운 비평'이나 '새로운 시가'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바르트가 '비평과 진실' 베베르가 '신비평과 구비평'을 발표해 이른바 신·구 비평전쟁을 통해서 실증주의·역사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구조주의가 알려지

언어현상의 분류 및 재구성

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인류학의 레비-스트로스와 마시스의 알튀세르, 정신분석학의 라캉, 철학의 미셸 푸코가 바르트를 함께 구조주의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푸코에 따르면 구조주의의 특징은 상징적인 것이다. 즉 실체적인 것의 상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제3의 질서로서의 상징적인 것이 있다. 다시말해 구조주의자들은 '보는 것'과 '표상하는 것' 외에 비가시적인 어떤 것을 읽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구조주의는 국소적 위치에 집중한다. 구조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위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때 위치는 구조적 공간에서의 위치지만 본질적으로 위상적이다. 또한 구조속에는 모든 것이 잠재적으로 공존한다. 그중 부분적인 조합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구조를 밝힌다는 것은 모든 현실적 존재 이전에 존재하는 잠재성을 밝히는 것과 동일하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맑스의 독창성은 그릇된 변증법의 환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소들과 경제적 관계들의 공존으로서의 사회체계를 정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가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요소들이 계층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들은 믿는다. 즉, 모든 구조는 복수계열적이며 그래서 구조주의는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요소들로 되어있으면서 끊임없이 창조되는 음악에 비유된다 하겠다.

박승재 (성대대학원·국문학)

'산맥'의 '안중근, 그리고 도마'

신앙운동적 측면과 민족해방운동사적 측면에서 안중근 의사와 당시 민중들의 삶을 재조명한 연극무대가 마련되었다.

극단 '산맥'은 '안중근, 그리고 도마'를 오는 29일까지 오후 7시 30분 서강대 메리홀극장에서 공연한다.

서광석씨가 연출한 이번 연극은 이등박문을 격살하는 장면으로 시작, 심문과정과 안중근 의사의 회상장면을 통하여 안중근의 사의 사상적 인격적 형성을 드러내는 한편 '신앙인 안중근'의 면모도 같이 그려내고 있다.

'안중근...은 참 신앙인의 삶과 올바른 교회상에 대한 해답을 고

◇신앙인으로서의 안중근 의사를 다루었다



국내최초 음악 도서관 설립

오는 11월 국내 최초로 명품음악 3백점 규모의 음악 도서관이 세워진다. 94년경 완공될 이 도서관은 전통, 대중, 영상음악등의 음반 5만여점과 음향기기를 갖추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 미래산업까지—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럭키

생활·신재부문

- 프라스틱 1사업부: 하이스타, UBR, SMC, 폴리카보네이트, 자동차부품 등
- 프라스틱 2사업부: 모노폼, 인출장판, 엑스트루, 노브롬, 카탈리스트, 비닐박지 등
- 화장품 사업부: 아로마, 미네랄, 아방, 케타일, 케타일 등
- 생활용품 사업부: 수퍼타이, 하모니, 페리올, 차임, 샴푸, 샴푸, 샴푸, 샴푸 등
- 정밀화학 사업부: 분산염료, 농약원료, 계면활성제, 솔비톨, 칼라 TV용 형광체, EPOXY 수지 등
- 의약품 사업부: 제4세대 세계적 항생제, 인터페론, 감마, B형 간염백신, 인간성장호르몬 등

화학부문

- 화학 1사업부: PVC, 스티렌, 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폴리우레탄 등
- 화학 2사업부: DOP, 옥탄올, 부탄올, 아크릴레이트, 아크릴산 등
- 화학 3사업부: ABS, 폴렌, SAN, PS, PE, EPS, PET 등
- 엔지니어링프라스틱 사업부: PMMA, PBT,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등
- 폴리머사업부: 선형저밀도 폴리올레핀, 초저밀도 폴리올레핀 등

국내외 합작회사

- * Lucky Allied Plastics Corporation * National Plastic Co. (Saudi Arabia)
- * Lucky Fiber Chemical Corporation * Henkel Rika Sdn. Bhd. (Malaysia)
- * Lucky Dow Glass Ltd. (Epoxy) * Lucky Palmo Sdn. Bhd. (Malaysia)
- * Lucky D.C. Silicone Co., Ltd. * Thai Wah Lucky Chemicals Co., Ltd. (Thailand)
- * Lucky Hoechst Corp. (HDPE) * P.T. Halim Samudra Interutama (Indonesia)
- * Lucky MMA Corp. * P.T. Sinar Lucky Plastics Industry (Indonesia)



럭키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제4세대 세계적 항생제 분자구조 개념도